

[오피니언]

특/별/기/고

박 남 언



많은 국민들이 조선 산업하면 울산을 떠올리고 기계산업하면 창원을 떠올리듯 이 광(光)산업 하면 이제 광주를 떠올리고 있다. 광산업이 광주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일반 시민들에게 광산업이 무엇인가? 왜 광산업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우리 시가 올해 10월에 광주세계엑스포를 개최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지역민의 이해와 적극적 성원 없이 특정 산업이 그 지역에 뿌리내리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시는 지난 2000년부터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광산업 육성을 시작하면서 광산업의 기반이 조성되고 광산업이 본 궤도에 들어설 시점이 되며 세계엑스포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해 광 관련 기업 수는 1999년에 비

해 7배 이상, 매출액은 12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저탄소녹색성장 흐름에 맞는 LED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광주 광산업은 새로운 발전기회를 맞고 있다. 이

여 빛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수준 높은 전시기법으로 유료전시할 계획이다.

빛 주제영상관, 빛 과학체험관, 빛 산업 기술관 등을 설치하여 빛의 무한한 가능성을 재미있게 보여줄 것이다. 이곳에서 광주시민들은 광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확인하면서 광주가 광산업을 지역 대표산업으로 육성한 것이 미래지향적인 선택이었음을 공감하게 될 것이다.

산업 전시 콘퍼런스 행사는 광 관련 기업들이 광제품과 기술을 전시하는 전문산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다. 빛의 축제가 열리는 금남로, 충장로 일원은 격조 높은 빛의 거리로 재탄생하게 된다. 또 옛 전남도청 등 도심건물을 배경으로 한 환상적인 건물 조명 쇼가 세계적인 조명 디자이너에 의해 연출되며 10월의 마지막 밤을 장식하는 빛의 공연도 펼쳐질 것이다.

국가나 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결정적 계기를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존재를 알리고 국운 융성의 길로 나아갔듯이 '2009광주세계엑스포'는 광주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다.

산업적으로 취약했던 우리 시가 광산업이라는 지역의 대표산업을 새롭게 창출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엑스포까지 개최한다는 것은 분명 광주 역사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갖는다.

세계 민주주의의 위대한 모범을 창출했던 광주시민은 산업에서도 반드시 성공신화를 일궈낼 것을 확신한다.

〈광주시 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 광산업도시를 향하여

련 우호적 여건에서 개최되는 광엑스포는 광주가 세계적인 광산업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올 10월9일부터 28일간 상무시민공원 일원에서 '빛'과 '광산업'을 주제로 개최되는 광주세계엑스포는 주제전시, 산업 전시·콘퍼런스, 빛의 축제 등 3대 행사가 어우러져 구성된다.

메인행사인 주제 전시행사는 상무시민공원 야외에 10여 개의 전시장을 설치하

업전시와 국제회의로 구성되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전문산업전시행사로 2009광주국제광산업전시회를 비롯하여 4개의 대규모 전시회에 1천여개의 기업이 참여한다.

여기에는 20여개의 국제회의행사 중 세계적인 빛의 도시들이 가입한 세계 빛의 도시연합(LUCI) 연차총회에 세계적인 빛 전문가들이 참석하게 된다.

빛의 축제는 빛 관련 문화예술축제로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박 흥 근



골목길은 어떤 곳인가. 사람냄새가 나고 정겨움이 느껴지는 친숙한 공간이다. 동시에 아스라한 추억의 단어다.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의 골목길, 지금 걸어 봄에도 아련한 그 당시 추억이 생각난다. 특히 중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골목길에서의 추억이 많을 것이다.

골목길은 그저 통로가 아니다. 그 골목에는 사람들이 오며 가며 모이는 작은 광장이나, 집 마당을 확장한 작업장이고, 아이들에겐 놀이터였다. 그러나

네... '신촌블루스'가 불렸던 '골목길'이라는 노래다.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노래다. 노래방이라도 갈 때면 자주 부르곤 한다. 어린 시절, 시골 골목길의 추억을 생각하며... 이런 골목길 추억은 현 세대의 젊은이들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모두가 거대 콘크리트 숲인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런 풍경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런 멋스러움을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골목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봄다. 골목길은 우리가 살아온

골목길을 추억하다

아파트숲으로 만들어진 도시 속 마을에서는 골목길이라는 단어를 듣기 싫지 않다.

골목길은 본인들의 추억에 따라 다른 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골목길하면 아늑한, 인간적, 자연스러운, 만남 등과 같은 단어들이 떠오른다. '편안함이나 인간적'이라는 것은 휴먼 스케일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폭, 높이, 생김새 등이 위엄적이지 않고 사람과 비교해 일정범위를 넘지 않는다. 이동 공간으로 생각해 보면 차의 통행이 어렵거나 못 들어가는 보행자만을 위한 길이다.

'자연스러움'이란 골목의 빠瘵(빠瘵)함이다. 골목 끝이 보일듯하다가 다시 모퉁이로 가려지고, 대문이 나타 날듯 하다가 숨는, 보이고 숨기고 반복하는 장소다.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다. 집 밖을 나서면 뜻하지 않게 이웃 어른이나 선후배,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 놀다 해야지 곧 것이다.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마음은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밀없이 바라보았지/ 만니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

역사자자 문화이며 생생한 유산이다. 또한 물리적으로도 뛰어난 공간이다. 우리가 유럽 여행에서 감동하던 그 골목길의 활기찬 공간과 비교해 봄에도 우리네 골목길이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그런 골목길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취급받고 있다. 모두가 골목길에 있는 그런 곳을 없애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 재개발을 통해 살맛나는 (?) 주거 공간을 만들고자...

그러나 그 새로운 공간에는 아늑함이나 인간적인 느낌이 없다. 자연스러움이나 우연성도 없다. 다만 무언가 계획된, 그러나 어색함만이 존재한다.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콜센터의 역할은 생각보다는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며 집중상담 하는 곳이다. 물

기 고

이종기



은행 콜센터의 역할은 고객의 모든 문의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하며 고객들께서 은행점포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처리하는 사이버은행 지점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전화상담보다도 인터넷 상담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도 세대간의 흐름이 명확해진다. 점점 젊은 세대들이 전화보다는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상담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런 멋스러움을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골목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봄다. 골목길은 우리가 살아온

학자금대출 상담은 은행 콜센터로

신학기가 다가오고 있는 대학 입학의 계절 정말 힘겹게 공부하여 입학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대기하고 있다. 바로 학자금 준비다. 과거 1970~1980년대에는 학자금이 없어서 대학의 진학을 꿈꾸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지금은 위와 같은 평계는 필 요 없게 됐다. 요즘은 같은 평계가 좋지 않을 때 학자금을 한방에 해결해주는 좋은 제도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학생학자금 대출 제도이다.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콜센터의 역할은 생각보다는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며 집중상담 하는 곳이다. 물

1544-2100로 문의하시면 만사형통으로 해결해준다.

농협은 2008년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취급 점유율 33.2%로 금융권 1위 은행으로서 농협의 미래 고객인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정경제 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은행 콜센터의 금융상식 업무를 이용하여 대학생학자금 해결에 모든 학부모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NH농협광주고객지원센터장〉

홈쇼핑 식품, 정확한 용량 표기 필요

게를 일컬어 밥 도둑이라고 한다. 그만큼 맛도 있고 영양도 풍부한 음식이다. 하지만 상당히 비싼 가격 때문에 설불리 손이 가지도 않는다.

우리 집도 아이들과 남편이 계장을 워낙 좋아해 가끔 사먹는데 식당은 다소 비싼 편에 얼마 전 홈쇼핑에서 주문을 했다. 국내산 벌미 간장게장 3.2kg이 5만3천원이었다. 이 정도면 보통 할인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 가격이었다.

그러나 주문 일마후 도착한 간장게장의 내용물을 뜯어본 후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게가 너무 적어 혹시나 하고 주방용 저울로 달아봤다. 그더니 계의 실제 무게는 1킬로그램에 안됐다. 그야말로 간장게장인지 계간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양터리였다. 너무나 속이 상해 그 계장을 판 홈쇼핑

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담당 상담원은 원래 간장이 그 정도 들어있는 것이 맞다면 그보다 계가 더 많이 들어있을 경우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역시 TV에서 본 것과 달리 내용물은 차이가 큰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TV에 나오는 것을 보노라면 노란 알이 꽂고 차고 살 도 실속있게 가득 들어차 있어서 침이 끌어 넘어갈 정도이고 중량도 많이 나갈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간장과 계의 무게 비율이 그 정도라면 그냥 간장게장 00kg을 판다고 선전할 게 아니라 간장게장 00kg 짜리는 간장이 00kg, 계가 00kg이라고 정확히 안내해줘야 한다.

▲이진경·광주시 북구 운정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고영양·다이어트 식품 사슴고기 양성화해야

우리나라 국민은 사슴은 녹용이나 먹기고는 전혀 먹는 걸로 알고있다. 하지만 사슴은 고기도 많이 먹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슴 고기를 소비해 줘으면 좋겠다.

사슴 생산 대국인 뉴질랜드는 사슴 총생산 중에서 사슴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나 된다고 한다. 그에 반해 국내의 사슴고기 소비는 극히 적다. 뉴질랜드나 러시아 녹용이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시장을 연한 거부감과 편견만 없애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 입맛에 맞는 요리를 개발해 준다면 사슴고기를 더 양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권정예·순천시 가곡동

시 설

지방부동산 규제완화 '좌고우면' 할 시간없다

정부가 봉고 직전의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고강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와 한나리당이 27일 부동산 규제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및 주택 양도 세금 완화 등이 있다. 지난해 말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1만3천277가구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지역 건설사들을 유동성 위기에 빠뜨린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검토로 끝나진 안 된다. 지난 번처럼 막판에 부동산 투기는 발목 잡혀 포기해선 곤란하다.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을 더 걱정해야 한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미지근한 대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특히 지난해 '12·2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반시장적 대책들을 뽑을 것 같은 의지를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핵심 규제들은 마판에 내려놓았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회생시키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주택 거래 및 분양은 물론 전세시장까지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다. 미분양 아파트 문제 역시

첫째도, 둘째도 '경제살리기'인 설 민심

을 살 민심은 한마디로 '경제 또 경제'였다. 미국발(發) 금융에서부터 불어닥친 초유의 위기상황이 실물경제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 "경제를 살려달라, 멀고 살게 해달라"는 하소연이 다른 모든 문제를 덮어 버린 것이다.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죄악의 각종 지표에서 잘 나타나 있다. 지난해 9월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 불으면서 11월에 생산, 수출, 소비 등 각종 지표들 마이너스 수령으로 밀어넣고 12월에는 일자리까지 깊이미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경기 추락의 공포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올 상반기이 이번 경제 위기의 저점이 되든 그렇지 않은 최근 겪어보지 못한 죄악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신규 취업자 수는 연간 기준으로 순감소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올 상반기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 고용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은 이번 설 민심을 제대로 파악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 민심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여야 간에 정쟁만 일삼는다면 성난 민심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정치권과 정부는 많은 국민이 정치나 국정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뼛 속 깊이 새겨야 한다. 명분 다툼이나 밥그릇 싸움을 계제가 아니라 민심을 외면하고 성공한 정치나 정부는 없다.

無等鼓

경제 행복지수(Economic Happiness Index)라는 게 있다.

도민간 경제연구기관이 경제적인 안정·우위·발전·평등·불평등 5개 하위 지수와 전반적인 행복지표를 종합평가한 개인의 경제 행복지표로, 만점은 보통 100점으로 한다.

지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고통이 크다는 말이고, 높을수록 경제적인 행복지수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경제적인 행복지수가 신뢰성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최근 그동안 경제적인 행복지수가 전방위로 확장되면서 자신들의 지구를 수박과 같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광주에서 만난 기천명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는 통계수가 절로 실감이 난다.

음식점·웃가게·문구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도산은 서민 계층의 몰락